

수젠텍, 1분기 영업익 447억 원...사상 최대 분기실적 달성

- ▶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 515%, 영업이익 714% 증가
- ▶ 알레르기 진단, 결핵 진단, 여성호르몬 자가진단 사업으로 성장세 이어갈 것

체외진단 글로벌 선도기업 수젠텍(253840, 대표이사 손미진)이 11일 2022년 1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수젠텍은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79억 원, 영업이익 44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매출액 515%, 영업이익 714%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349억 원을 달성하며 518% 늘었다.

회사측은 호실적의 주요 요인을 올해 1분기 오미크론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증대로 꼽았다. 실제로 수젠텍은 내년 3월까지 조달청과 총 50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체결된 국내 공공분야 첫 계약으로 이를 통해 공공에서 민간 분야까지 공급했다.

이외에도 기존 공급처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국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도 실적상승에 일조했다. 특히 베트남 지역은 올해 1월 77억 원 규모의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공급 계약했다.

수젠텍은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 ▲알레르기 진단 ▲결핵 진단 ▲여성호르몬 자가진단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회사는 중국 대형 진단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로, 현재까지 약 500대의 알레르기 진단기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 또한 최근 여성호르몬 진단 제품 3종의 유럽 'CE CoC' 인증을 획득해 별도 인증 없이도 유럽 전역에서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젠텍 손미진 대표이사는 "수젠텍은 회사의 독보적 바이오, 나노,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병원부터 중소형 병원, 개인까지 체외진단 기기를 제공하며 글로벌 체외진단 토탈 플랫폼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자료]

(단위: 억 원)

	2021.1Q	2021.4Q	2022.1Q	QoQ	YoY
매출액	110.3	256.6	679.4	164.8%	515.7%
영업이익	54.9	115.2	447.1	288.1%	714.4%
당기순이익	56.4	111.7	349.2	212.6%	518.9%